

## 설 밥상머리 민심이 대선 승패 가른다

이재명, 광주 방문 아이파크 현장 등 찾아 텃밭 민심잡기  
윤석열, 청와대 해체·광화문 집무실 공약 내걸고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 3·9 대선 항배를 가를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27일 총력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3·5면〉

이재명 후보는 호남의 전폭적 지지가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인식 아래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전폭 지원 등 대선 지역공약 보따리를 푼 데 이어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과 전통시장, 충장로 등 광주 구석구석을 돌며 텃밭 민심 잡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서울 당사에서 '청와대 해체, 광화문 대통령실 시대'를 빼대려 한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정권 교체 지지세력 끌어안기에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송정리 광주공항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광주의 숙원인 광주군공항 이전 총력 지원,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문화, 인공지능 특화 기업도시 광주 만들기, 자동차산업의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그린수소스트림'을 통한 광주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서 주신 곳이 광주였다.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서 우리 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실 광주"라며 한껏 몸을 낮춘 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잇는 제4기 민주정부를 우뚝 세우고 더 활기차고 잘 사는 광주·전남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중대 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 대산업개발을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정부 일원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똑같은 사업체에 의해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하다. 살기 위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설 대목장이 열린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았다. 제사용품을 사러 온 시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고 날이 저물 즈음에는 이낙연 후보와 함께 광주 충장로를 찾아 광주시민 목소리를 들으며 연휴 직전 광주 민심잡기 행보를 마무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였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말바우시장의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코스피의 비명 ... 2600대 초반 간신히 지켰다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긴축 시사에 한국 증시도 얼어붙으며 코스피는 2600 초반을 간신히 지켰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5%(-94.75포인트) 급락하며 2614.49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2020년 11월30일(2591.34)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이날 국내 증시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63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 중 LG에너지솔루션이 1조4741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기관은 1조805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순매수 금액은 3조469억원에 달했다. 이날 기관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은 1998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개인은 1727억원을 팔았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전장보다 3.73%(-32.86포인트) 내린 849.23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839.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설 오미크론 공포...광주·전남 700명 '초읽기'

3일 연속 600명대 역대 최다  
고향방문·만남·외출 자제 호소

설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발 코로나19가 광주·전남을 휩쓸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역대급인 3일 연속 600명을 돌파했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만남과 모임, 외출도 최소화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부에서 방역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설 연휴 이후 역대급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는 모두 419명이 신규 확진됐다. 역대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5일 확진자 수(396명)를 넘어선 것이다. 동구 요양병원은 이날도 15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404명으로 늘었다. 북구 요양병원에서도 3명이 확진돼 지금까지 86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401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

조사 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206명이 확진됐다. 목포 72명, 여수 22명, 순천 20명, 무안 17명, 영암 12명 등을 기록했다. 증가세가 주춤했던 목포 등 서부권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는 25일 682명, 26일 637명으로 이를 연속 역대 최다인 6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현재 625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700명대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8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족·지인 간 연쇄 감염과 요양병원·시설, 콜센터 등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4518명을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설 특집 28면 발행

2022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기사대	▶3·4면
설 연휴 생활정보	▶8면
설 연휴 가볼만 한 곳·볼만 한 영화	▶11·12면
설 연휴 TV와 함께	▶23~25면

####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연휴 날씨 전망		
29(토)		구름많음 -3/4
30(일)		구름많음 -3/6
31(월)		구름많음 -4/7
2/1(화)		눈 또는 비 -2/6
2(수)		구름많음 -2/4

###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